

## 다이옥실파동 등 오리고기 소비 다소 호전

다이옥신에 오염된 벨기에산 돼지 및 닭고기 파동으로 전세계 식료품 시장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이 여파로 오리고기 소비가 다소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다이옥신 파동으로 소비자들의 육류소비에 대한 거부반응이 국내산 육류로 집중되면서 특히 돼지고기나 닭고기에 비해 안전하다고 인식되는 오리고기로 눈을 돌리면서 유통물량이 다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농번기 철이 지나 오리고기 소비가 다소 호전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 한 유통업자는 이와관련해 「하루 유통물량이 종전에 비해 약 10%정도 늘어났다」고 말해 이를 반증하고 있다.

그러나 중부지역 오리사육농가는 이와관련해 「유통물량은 다소 나아졌는지 몰라도 농가에서 출하되는 오리의 출하일령은 크게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 유통물량 증가가 농가 출하일령을 호전시키는데는 육용오리 출하물량이 많아 아직도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육류 원산지 표시 의무대상  
소매점,음식점까지 확대 계획**

지난8일 다이옥신 파동으로 수입육류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된 가운데 농림부가 수입육류의 원산지 표시 의무대상업소를 일반 소매점,요식업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김성훈 농림부장관은 지난 6월14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21C 희망의 경기포럼 강연에서 「육류의 원산지 표시 의무대상업소와 미이행업소에 대한 단속을 소매점과 음식점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이옥신 검사체계의 조기 확립을 위해 식품위생법에 검사기준과 방법을 정하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중이라면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다이옥신 검사장비를 설치하고 전문인력을 보강하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금까지 육류의 원산지표시 의무대상 업소는 식육점 등에 국한되고 요식업소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아 소비자단체는 물론이고 국내 축산업계가 표시 의무화를 주장해 왔었다.

육류의 원산지 표시 의무제가 일반요식업소까지 확대되면 오리고기 소비의 70%이상을 일반 요식업소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오리업계는 수입육과의 차별화에 의한 경쟁력을 갖추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오리고기 브랜드육 출시  
일반 소비자 대상 대대적 홍보**

오리고기 유통에 자사 고유브랜드를 부착시켜 판매하는 유통업체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어 수입육과의 차별화에 의한 국산 오리고기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남 나주에서 닭고기와 오리고기를 생산유통하고 있는 화인코리아(대표 나원주)는 최근 닭고기 오리고기에 자사 고유브랜드 명을 치키더키(Chicky Ducky)로 명명하고 대소비자 홍보에 들어갔다.

월 12만수내외의 오리고기를 생산 유통하고 있는 화인코리아의 홍보내용을 살펴보면 월간지와 TV에 모델 원미경을 내세워 주부들이 보는 시간대에 중점 홍보하고 있다.

오리업체에 자사 고유브랜드로 오리고기를 홍보하기는 주원농산에 이어 두 번째이며 이번 화인코리아의 오리고기 홍보는 일반소비자들에게 오리고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함은 물론이고 일반 가정으로의 오리고기 소비를 촉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화인코리아는 향후 라디오 방송까지 자사브랜드 오리고기를 홍보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일반소비자들이 쉽게 구매하여 가정에서 손쉽게 먹을 수 있는 가공 신제품 출시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인코리아의 이같은 제품생산 및 홍보는 국내 오리고기 소비시장을 일반요식업소에서 일반 가정으로의 소비를 늘리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 장기적

인 오리업 발전측면에서도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출하물량 증가되면서 육용, 새끼오리 덩빙판매 기승

최근 육용오리 새끼오리 출하물량이 증가되면서 육용오리 새끼오리 가격이 큰폭으로 하락한 가운데 생산비 이하에서 육용오리 새끼오리를 판매하는 덩빙판매가 기승을 부리면서 가격하락을 더욱 부채질 하고 있다.

협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1일 현재 산지 육용오리 가격은 중부권이 4,400원선, 영호남권이 4천2백원선에 거래되고 새끼오리 가격은 중부권이 600원선, 영호남권이 700원선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실제로 유통되는 육용오리, 새끼오리 가격은 그 이하로 형성돼 판매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도체된 도계품이 중부권은 4천7백원, 영호남권은 4천3백원까지 거래가 이뤄지고 있어 육용오리 가격하락을 부채질 하고 있다.

또 새끼가격역시 육용오리 출하가 지연으로 더 이상 새끼오리 입식이 불가능한 농가가 생겨나면서 일반거래가격보다 크게 낮은 5-6백원선까지 떨어져 거래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육용오리 새끼오리 가격 하락을 더욱 부채질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육용오리 소비물량이 늘어나지 못하면 당분간 지속될 보인

다.

### 오리고기 수입 전월대비 25% 감소

오리고기 수입이 전월대비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집계한 지난5월 오리고기 수입량은 12건에 150톤이 수입됐다.

이는 전월 수입물량 199톤에 비해 25% 감소된 실적이나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48% 증가된 물량이다.

금액상으로는 41만5천달러로 Kg당 수입가격은 2.76달러로 전월 수입가격 3.06달러보다 10%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수입물량이 줄어들고 수입가격이 하락한 것은 국내 산지 오리가격이 계속하락하고 있는데다 중국산 오리고기 수입재개 움직임 등에 따라 수입상들이 수입물량을 줄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 지난달 종오리 10,560수 도입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5월 수입된 종자용 PS 오리는 프랑스로부터 1건에 10,560수가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금액은 3만달러로 환율 1,200원으로 환산시 새끼종오리 수당가격은 3,400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종자용 새끼오리는 경기도 M부화장이 후보종오리 육성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 소비촉진 홍보자조금 마련협의 시행에는 난항

현재의 오리업계 불황타개책의 일환으로 오리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자조금을 마련키로 합의됐으나 시행에는 난항을 겪고 있다.

본회 부화분과위원회(위원장 조상현)는 지난 9일 대전 유성오리마을에서 전라도지역 4개부화장, 중부지역 2개부화장등 6개 부화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재의 불황 타개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부화장들은 현재의 상황이 육용오리 과잉생산에 따른 것으로 결론짓고 새끼오리 생산량 감축과 오리고기 소비를 늘려야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부화장들의 새끼오리 감축은 결의한다고 해도 참여하지 않는 부화장들이 많아 실현이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짓고 부화장 자율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종오리는 먼저 도태시켜 새끼생산량을 감축하는 동시에 생산성을 높여 나아가기로 했다.

또 소비촉진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부화장들이 출선한다는데 합의하고 각 부화장의 생산능력에 따라 자조금을 거출키로 했다.

이날 합의된 기준은 부화장들의 주당 새끼생산량을 기준으로 1만수이하는 1백만원, 2만수이하는 2백만원, 3만수이하는 3백만원등 만수를 기준으로 자조금 금액을 정하는 한편 각 지회 지회장을 중심으로 모든 부화장이 자조금 거출에 참여를 독려키로 했다.

또 이같이 거출된 홍보자조금 전액은 오리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에 사용키로 했다.

한편 부화분과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중앙회는 이같은 홍보자조금 거출은 사육,유통등 오리업계 종사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만큼 사육농가,유통업자들도 예외일 수 없다고 보고 사육,유통업계 종사자에게 소비홍보의 중요성을 알려 참여를 독려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같은 홍보자조금 거출방침에도 불구하고 각계의 의견이 엇갈려 시행에는 난항을 겪고 있다.

### 더위 빨리찾아와 부화장 생산성 저하

여름철 더위가 당초보다 10일 이상 앞당겨 찾아오면서 부화장들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7월 중순이후 새끼생산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부화업계에 따르면 여름철 더위가 예년에 비해 앞당겨 찾아오면서 종오리의 산란율이 전월대비 5%내외 감소하면서 부화장들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

더위에 의한 부화장들의 이같은 생산성 저하는 아직까지 부화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으나 이들 종란이 부화되는 7월 중순이후에는 부화율 역시 같은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오리값 하락 유통업체 경쟁치열

산지오리가격이 크게 하락한 가운데 유통업체의 오리판촉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제살 깎아먹기식 과열양상이 심각해 지고 있다.

이같은 과열경쟁은 유통업자간 요식업소 오리 납품가격을 내리는데만 작용할 뿐 납품물량을 늘리는데는 전혀 도움이 안돼 유통업자들은 납품가격하락과 납품물량 감소를 가져와 2중의 어려움만 가속화 시키고 있다.

이와관련해 중부지역 한 유통업자는 요식업소 납품가격이 마리당 1천원 정도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에반해 유통물량은 지육중량이 2.4-2.5Kg으로 늘어나 납품되다보니 요식업소는 2마리를 가지고 3마리를 만들어 팔아 한 요식업소당 납품물량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현상은 오리고기 소비확대에 전혀 도움을 주지못하면서 유통업체의 출혈양상만 드러내 가격이 하락한 만큼 소비물량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업계 종사자들이 힘을 모아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